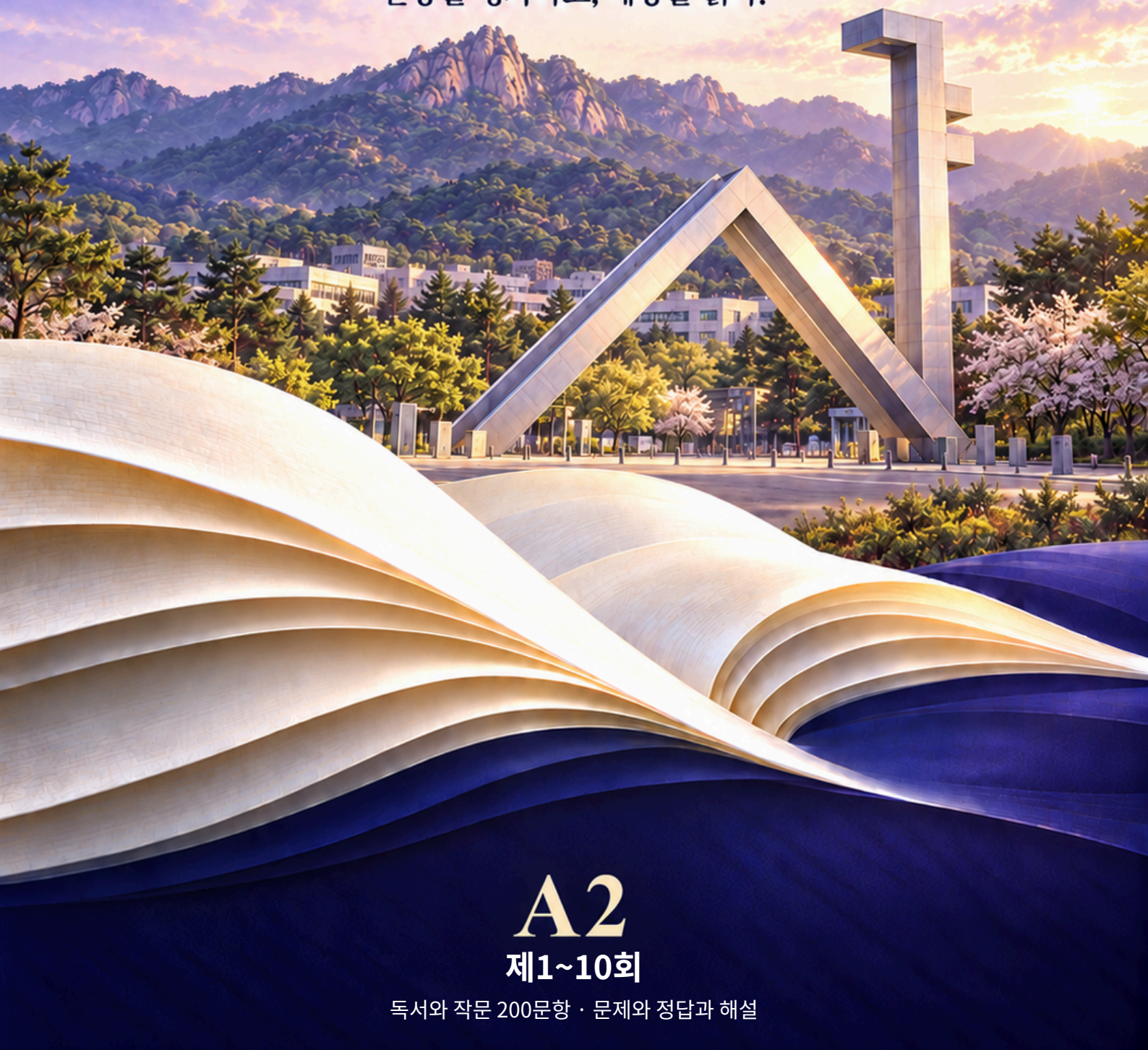
길영에듀 독서와 작문 시리즈

세상이 읽히다

수능 1등급을 향한 독서와 작문

논증을 평가하고, 세상을 읽다.



A2

제1~10회

독서와 작문 200문항 · 문제와 정답과 해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낯선 대상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미 아는 다른 대상을 불러오곤 한다. 그러나 두 대상이 닮았다는 말만으로 무엇을 옮겨 이해해야 하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색과 모양을 가진 물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고, 외양이 다른 대상들이 비슷한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인지과학자 젠트너의 구조 대응 이론은 유추를 이해하는 핵심이 개별 대상의 속성보다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대응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여기서 설명의 바탕으로 삼는 상황을 출발 영역, 새롭게 이해하려는 상황을 목표 영역이라 한다. 이때 유추는 출발 영역의 지식을 통째로 복사하는 일이 아니다. 비교에서 어떤 관계를 보존하고 어떤 속성을 옮기지 않을지를 가려야 목표 영역에 관해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가 드러난다.

관계를 대응시키려면 그 관계에 참여하는 대상들의 역할도 함께 맞추어야 한다. 가령 한 상황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초보 기술자가 숙련 기술자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하자. 두 문장의 주어를 짝짓는다면 선배와 초보 기술자가 대응하지만,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에 주목한다면 선배는 숙련 기술자에 대응한다. 문장에서 먼저 등장하는 위치와 관계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다르기 때문이다. 구조 대응 이론이 말하는 일관된 대응에서는 한 영역의 한 대상을 상대 영역의 여러 대상에 임의로 나누어 짝짓지 않는다. 또한 한 관계를 설명할 때 정한 대응을 다음 관계에서 편의에 따라 뒤집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대상들의 속성이 비슷하면 유추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속성도 닮아 있을 수 있지만, 그 닮음이 관계의 대응을 대신할 수는 없다.

관계가 몇 개 대응하는지만 세는 것으로도 유추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설명을 이루는 관계들은 흩어진 관계들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이룬다. 예를 들어 한 공방에서 주문 내용을 작업자에게 전달하지 못해 제작이 지연되고, 그 지연 때문에 배송도 늦어진다고 하자. 다른 조직을 설명하면서 단지 두 조직 모두 작업 공간과 휴게 공간이 떨어져 있고 책임자가 먼저 출근한다고 덧붙이는 것은 관계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 관계들은 제시된 지연의 설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반면 다른 조직에서도 앞선 단계의 정보가 다음 작업의 시작 조건이며, 그 정보의 지연이 후속 단계로 전달된다고 대응시키면 관계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 구조를 보존한다. 이처럼 체계성은 닮은 점의 단순한 개수나 비교 대상의 친숙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미 대응하는 관계들을 발판으로 목표 영역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계를 제안할 수도 있다. 공방이 주문 전달 방식을 바꾸어 제작 지연을 줄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면, 비슷한 지연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도 앞 단계의 정보 전달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출발 영역에만 알려진 내용을 공동의 관계 구조와 연결하여 목표 영역에 옮긴 추론이다. 다만 공방의 벽 색깔이나 작업자의 나이처럼 그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속성까지 함께 바꾸어야 한다고 추론할 근거는 없다. 또한 목표 영역에서 이미 알려진 관계와 어긋나는 내용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무엇을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두 영역에서 확인된 관계와 목표 영역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관계를 나누어야 한다.

여기서 구조에 맞는 추론을 얻었다는 것과 목표 영역의 실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은 구별된다. 정보 전달을 개선하면 지연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론을 제안할 수 있어도, 목표 조직에서는 부족한 인력이나 별도의 승인 절차가 지연을 유지할 수 있다. 유추는 조사할 가능성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그 결과를 미리 입증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실제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영역에서 이미 확인한 모든 대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정보의 지연이 후속 작업에 영향을 준다는 대응은 유지되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전체 지연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수정될 수 있다. 유추를 검토할 때에는 대응의 일관성, 관계들의 체계성, 새롭게 옮긴 추론의 사실적 타당성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이 셋을 구별해야 닮은 구조를 이용하면서도 그 구조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들의 속성이 서로 닮아 있을 때에는 관계를 대응시키는 유추와 구별되는 설명을 해야 한다.

② 목표 영역에서 관찰된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앞서 확인한 관계의 대응도 함께 철회해야 한다.

③ 하나의 설명에 연결된 관계가 적더라도, 서로 흩어진 관계를 더 많이 대응시키면 체계성이 높아진다.

④ 문장의 주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면, 주어끼리 짝지은 대응을 관계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⑤ 목표 영역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관계는 출발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제안할 수 없다.

2.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비교를 관계의 체계성 측면에서 더 충실하게 만드는 추가 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 학생은 음식점의 주문 처리 과정과 출판사의 책 제작 과정을 비교했다. 음식점에서는 주문 내역의 확정이 늦어지면 조리의 시작이 늦어지고, 그 결과 음식 제공도 늦어진다. 학생은 출판사에서도 앞 단계의 지연이 뒤 단계에 전해질 수 있다고 보았지만, 책 제작의 단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① 출판사에서도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준비 공간과 마무리 작업 공간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

② 원고의 확정이 인쇄 시작의 조건이며, 그 확정이 늦어져 인쇄와 책 출고가 차례로 지연된다는 사실.

③ 출판사에서도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책임자가 먼저 출근하고, 신입 직원이 나중에 출근한다는 사실.

④ 책 제작에도 여러 담당자가 참여하며, 음식점에서처럼 각 담당자가 서로 다른 경력을 가졌다는 사실.

⑤ 음식 제공과 책 출고에는 모두 여러 단계가 필요하며, 두 과정의 단계 수가 같다는 사실.

3. 윗글의 유추 방식에 따라 〈보기〉의 목표 상황에 대해 제안할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출발 상황: 공방의 제작팀은 설계팀이 보낸 도면에 따라 모형을 만들었다. 시험팀은 결함이 발생한 부분과 실제 제작 순서를 기록했다. 시험팀은 결함의 개수만 제작팀에 알려 주던 방식을 바꾸어, 도면과 제작 기록을 비교했다. 그 결과 도면대로 제작한 부분에서도 특정 결함이 되풀이됨을 확인하여 그 조건을 설계팀에 전달했다. 설계팀이 해당 부분의 도면을 고치고 제작팀이 바뀐 도면에 따라 다시 만들자 그 결함이 줄었다.

목표 상황: 소연은 태경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따라 시범 해설을 진행했다. 민재는 소연의 진행 순서와 해설이 중단된 지점을 기록했다. 민재의 기록에 따르면, 되풀이하여 중단된 지점에서도 소연은 프로그램에 적힌 순서대로 진행했다. 태경에게는 전체 중단 횟수만 전달되어 있다. 연구자는 공방의 사례를 이용해 다음 시범 해설의 개선 방안을 구상하려 한다.

① 소연이 제작팀처럼 계획을 실행했으므로, 중단 지점의 기록을 소연에게 주어 프로그램에 맞추는 연습을 늘리면 중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민재가 시험팀처럼 진행을 관찰했으므로, 태경이 민재에게 예정된 순서를 자세히 알려 주는 일을 출발 상황에서 결함 조건을 알린 일에 대응시킬 수 있다.

③ 태경이 설계팀처럼 계획을 작성했으므로, 전체 중단 횟수를 더 많은 시범에서 모아 태경에게 주면 출발 상황에서처럼 문제의 조건을 가려낼 수 있다.

④ 소연이 제작팀처럼 실행을 맡았으므로, 민재가 중단의 조건을 소연에게 주어 소연이 프로그램을 고치게 하면 출발 상황의 수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⑤ 민재가 시험팀처럼 기록을 남겼으므로, 계획과 일치한 진행에서도 중단된 지점의 조건을 태경에게 주어 계획 수정을 검토하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을 받은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이용하면 열을 저장할 수 있다. 이처럼 온도 변화에 수반되는 열을 현열이라 한다. 그러나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동안에도 물질은 열을 흡수할 수 있다. 고체가 녹을 때 흡수하는 융해열이 그 예이며, 이처럼 상태 변화에 수반되는 열을 잠열이라 한다.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장치는 녹는 동안 열을 받아들이고 굳는 동안 열을 내보내는 과정을 활용한다. 여기서는 일정한 압력에서 녹는점과 어는점이 같고, 상변화 중 온도가 일정한 이상적인 물질을 다룬다. 냉각해도 액체 상태가 유지되는 과냉각이나 반복 사용에 따른 물성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같은 물질에서는 질량이 클수록 완전히 녹는 데 필요한 열량도 크다. 고체 전체를 녹일 때 흡수하는 열량을 장치의 잠열 용량이라 하면, 이는 상변화 물질의 질량과 단위 질량당 융해열을 곱한 값이다. 다만 잠열 용량과 지금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잠열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일부가 이미 녹았다면 남은 고체가 녹을 때 흡수할 열량만큼만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 녹은 뒤에도 온도가 오르며 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열은 더 이상 융해에 쓰이는 잠열이 아니다.

잠열을 활용하려면 물질의 녹는점이 사용 환경과 맞아야 한다.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므로, 녹는 물질에 열을 계속 공급하려면 열을 주는 쪽의 온도가 녹는점보다 높아야 한다. 반대로 물질을 다시 굳히려면 녹는점보다 낮은 쪽으로 열을 내보내야 한다. 낮에 녹은 물질이 밤에 충분히 굳으면 다음 날 다시 열을 흡수할 여유를 확보한다. 밤에도 주변 온도가 녹는점보다 높다면, 단순히 밤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과정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외부 동력으로 열을 옮기는 장치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 한 온도 차의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

열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와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가는 구별해야 한다. 잠열 용량이 커도 열이 물질 내부로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면 짧은 시간에 들어온 열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물질 일부가 아직 고체라는 사실만으로 열을 내는 대상의 온도 상승을 막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남아 있는 잠열 용량이 제한된 시간 안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열을 전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열전도율이나 열이 통과하는 경로는 이 속도에 영향을 준다. 장치 내부에 열전도율이 높은 금속 구조물을 넣는 것은 이러한 경로를 개선하는 한 방법이다. 예컨대 열을 내는 대상과 맞닿은 부분에서 물질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기 어렵다면, 안쪽에 고체가 남은 상태에서도 대상의 온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고체가 남아 있다는 관측과 온도 상승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장치의 부피가 정해져 있다면 금속이 차지하는 자리만큼 상변화 물질의 양이 줄 수 있다. 금속 자체는 사용 온도 범위에서 녹지 않는다고 할 때, 금속을 넣어 열전달을 빠르게 만들더라도 상변화 물질의 잠열 용량까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줄어든 질량 때문에 그 용량이 작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큰 열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전달 경로를 개선한 장치가 유리해도, 충분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열을 저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변화 물질을 많이 넣은 장치가 유리할 수 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열의 유입 시간과 총량을 함께 보아야 한다.

이러한 비교에서는 사용 직전의 상태도 맞추어야 한다. 한 장치만 덜 굳은 상태라면 재료의 잠열 용량이 아니라 남은 고체의 양이 성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치의 성능은 재료 이름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용 온도에서 상변화가 가능한지, 받아들여야 할 열량에 비해 남은 잠열 흡수 여유가 충분한지, 필요한 시간 안에 열이 전달되는지를 연결하여 판단해야 한다. 반복 사용에서는 다음 사용 전까지 열을 내보내 고체 상태를 회복하는 조건도 포함해야 한다. 이하에서 잠열의 활용만 비교할 때에는 용기·금속의 현열과 외부로의 열손실을 제외한다.

[1~3] 지문 이해

핵심 어휘

속성 하나의 대상이 가진 성질입니다. 본문에서는 색·모양·나이처럼 개별 대상의 특성을 말하며, 대상들 사이의 조언·전달 등의 관계와 구별합니다.

출발 영역·목표 영역 출발 영역은 설명의 바탕이 되는 이미 아는 상황이고, 목표 영역은 그 상황에 비추어 새롭게 이해하려는 상황입니다. 정보를 옮기는 방향을 판단할 때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대응 두 상황의 요소를 관련 있는 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름이나 문장의 위치보다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짝짓습니다.

체계성 대응한 관계들이 흩어진 닮은 점으로 남지 않고 원인과 결과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설명을 이루는 성질입니다. 닮은 점이 많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추론의 사실적 타당성 유추로 제안한 내용이 목표 상황에서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뜻합니다. 구조에 맞게 제안할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 사실이라는 판단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문단의 흐름과 내용

1문단 유추의 핵심을 속성의 닮음과 구별되는 관계의 대응으로 설명하고 출발 영역과 목표 영역을 정의합니다.

2문단 문장 속 위치와 관계 속 역할을 구별하고, 여러 관계에 걸쳐 일관된 대상 대응을 유지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3문단 서로 흩어진 관계와 원인·결과로 연결된 관계를 대조하여 체계성이 관계의 개수와 다름을 밝힙니다.

4문단 이미 대응한 구조에 연결하여 목표 영역에 새로운 추론을 제안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5문단 구조에 맞는 추론과 실제 사실의 확인을 구별하고,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확인된 대응의 범위는 따로 평가해야 함을 밝힙니다.

글의 관계

글은 관계의 대응을 출발점으로 삼아, 역할의 일관성, 관계들의 체계성, 추론의 사실적 타당성을 차례로 구별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유추의 유용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결과를 실제 사실로 확정하는 해석을 제한합니다. 사례를 비교할 때에는 누구와 누가 같은 역할을 하는지, 그 관계가 다른 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새로 옮긴 결과가 실제 확인되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01번

정답 ④

수능 유형: 세부 내용 이해 (문장의 위치와 관계 속 역할의 구별)

정답 근거

근거 위치 2문단의 선배·후배와 초보 기술자·숙련 기술자 사례 및 '문장에서 먼저 등장하는 위치와 관계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다르다'는 설명.

선배가 조언하는 상황과 초보 기술자가 조언을 받는 상황에서는 두 문장의 주어가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2문단은 주어의 위치를 맞추는 대신 조언을 주는 사람끼리, 받는 사람끼리 대응시킵니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끼리 짝지은 결과가 관계 속 역할과 맞지 않을 때에는 대응을 조정해야 한다는 ④가 적절합니다.

선지 판단

① 적절하지 않습니다. 2문단 마지막 부분은 속성도 닮아 있을 수 있지만 그 닮음이 관계의 대응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속성이 닮았다는 사실은 유추를 배제할 이유가 아니므로, 속성의 유사성이 있으면 유추와 다른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제한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적절하지 않습니다. 5문단에 따르면 예상한 개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정보 지연이 후속 작업에 영향을 준다는 확인된 대응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새 추론의 실패를 이미 확인한 모든 관계의 실패로 확대한 판단입니다.

③ 적절하지 않습니다. 3문단은 서로 흩어진 관계를 추가한 것과 하나의 설명으로 연결된 구조를 보존한 것을 구별합니다. 흩어진 관계가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체계성이 높아지지는 않으므로, 관계의 개수를 체계성의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④ 적절합니다. 두 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짝지으면 조언을 주는 선배와 조언을 받는 초보 기술자가 연결됩니다. 본문은 조언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선배와 숙련 기술자를 대응시키므로, 문장 속 위치보다 관계 속 역할을 우선한 설명입니다.

⑤ 적절하지 않습니다. 4문단은 출발 영역에만 알려진 내용을 공동의 구조와 연결하여 목표 영역의 새 추론으로 옮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 영역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로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이지, 그 관계를 추론하여 제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02번

정답 ②

수능 유형: 보기 적용 (관계의 수와 인과적으로 연결된 구조의 구별)

정답 근거

근거 위치 3문단의 작업 지연·배송 지연 사례와 '체계성은 닮은 점의 단순한 개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설명, 〈보기〉의 주문 확정→조리→음식 제공의 연결.

음식점의 사례에서는 주문 확정이 조리 시작의 조건이고 조리 지연이 제공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②는 원고 확정·인쇄·출고를 이에 대응시킬 뿐 아니라 앞 단계의 지연이 다음 단계의 지연을 낳는 연결까지 제시합니다. 3문단의 기준에 따라, 관계들을 하나의 설명으로 연결한 구조를 보존하는 추가 정보입니다.

선지 판단 · 2번

①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공간이 떨어져 있다는 관계는 두 조직에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앞 단계의 지연과 후속 단계의 지연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설명하는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공간 관계를 추가했습니다.

② 적절합니다. 주문 확정과 원고 확정, 조리와 인쇄, 음식 제공과 책 출고를 각각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응 안에서 앞 단계의 확정이 다음 작업의 시작 조건이고 그 지연이 뒤로 전해진다는 인과적 연결도 함께 보존됩니다.

③ 적절하지 않습니다. 책임자와 신입 직원의 출근 순서는 두 대상 사이의 관계이지만, 주문·조리 또는 원고·인쇄의 지연 구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성이 아니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④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 담당자가 참여한다는 점과 담당자의 경력이 다르다는 점은 제시할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다른 단계의 시작 조건인지 드러내지 않으므로, 학생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과정 사이의 연결을 보충하지 못합니다.

⑤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계 수가 같다는 것은 과정의 외형적 구성이 비슷함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단계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지,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어, 지연의 전달 구조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03번

정답 ⑤

수능 유형: 보기 적용 (세 역할의 일관된 대응과 실행·계획의 관계에 근거한 후속 추론)

정답 근거

근거 위치 2문단의 여러 관계에 걸친 역할 대응의 일관성, 3·4문단의 연결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 추론, 〈보기〉의 계획 작성자·실행자·관찰자 역할 및 계획과 실행이 일치한 부분의 문제 발생.

계획을 작성하는 설계팀은 태경, 계획을 실행하는 제작팀은 소연, 실행을 관찰하는 시험팀은 민재에 대응합니다. 공방에서는 계획대로 실행했는데도 생긴 결함의 조건을 설계팀에 전달하여 계획 수정으로 연결했습니다. 목표 상황도 중단 지점의 실행이 계획과 일치하므로, 그 조건을 민재가 태경에게 전달하여 계획 수정을 검토하게 하는 ⑤가 같은 관계 구조를 보존합니다.

선지 판단

①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작팀과 소연의 실행 역할은 맞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목표 상황의 중단 지점에서 소연은 이미 프로그램에 적힌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출발 상황의 개선은 이런 경우 실행을 계획에 더 맞춘 것이 아니라 계획을 고친 데 있으므로, 문제 발생과 개선의 연결을 다르게 옮겼습니다.

②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팀과 민재의 관찰 역할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방에서 결함의 조건을 전달한 쪽은 시험팀이고 받는 쪽은 설계팀입니다. ②는 태경이 가진 예정된 순서를 민재에게 보내는 일을 그 관계에 대응시켰습니다. 관찰자에서 계획 작성자로 가는 전달을 그 반대 방향의 전달에 대응시켜 역할의 일관성과 정보 내용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선지 판단 · 3번

③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계팀과 태경의 계획 작성 역할은 맞지만, 공방에서는 결함의 개수에서 벗어나 도면과 실제 제작 기록을 비교하여 조건을 가렸습니다. 전체 횟수를 얻는 사례 수를 늘린다는 정보만으로 그 비교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기록의 양을 늘리는 것을 기록의 역할을 바꾸는 것과 혼동했습니다.

④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작팀과 소연을 실행자로 대응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방에서 도면을 고친 설계팀의 역할까지 소연에게 옮겼습니다. 중단 조건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은 맞아도, 계획 작성자에게 돌아가 계획 수정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대응을 바꾸었으므로 일관된 전이가 아닙니다.

⑤ 적절합니다. 관찰자인 시험팀·민재가 계획과 실행을 비교하고, 계획대로 실행한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의 조건을 작성자인 설계팀·태경에게 돌려주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계획 수정의 검토로 연결한 추론이며, 목표 상황에서 실제 중단이 줄었다고 미리 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독해 보충

1번을 틀렸다면, 먼저 두 사례를 '누가 조언하는가'와 '누가 조언을 받는가'로 나누어 적으십시오. 문장 앞부분에 나온 이름끼리 연결했을 때와 역할을 기준으로 연결했을 때의 차이를 확인하면, 문장 형식이 같다는 이유로 의미 관계까지 같다고 처리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번을 틀렸다면, 보기에서 이미 주어진 것은 음식점의 인과적 연결이고, 빈칸은 출판사 단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둘 다 여러 단계다'에서 멈추지 말고, 무엇이 다음 작업의 시작 조건인지와 앞의 지연이 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③도 관계를 말하지만 지연 설명에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②와의 차이입니다.

3번을 틀렸다면, 먼저 이름을 지우고 역할을 적으면 '설계팀=태경, 제작팀=소연, 시험팀=민재'입니다. 다음으로 중단 지점의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계획대로 진행했다는 사실 때문에 ①의 추가 연습과 ⑤의 계획 수정은 같은 개선이 아닙니다. ④와 ⑤는 모두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하지만, ④는 실행자인 소연에게 계획 작성자의 수정 역할까지 옮깁니다. 한 관계에서 세운 대응이 다음 관계에서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D. Gentner, 「Structure-Mapping」; Gentner·Markman, 「Defining Structural Similarity」; Northwestern University 연구팀의 구조 대응 소개. 관계 대응·체계성 개념을 참고해 자체 구성했으며 공방·조직과 문항 사례는 가상입니다.